

2024 년 12 월 15 일 “(강림절 3 주) 참 예언자를 기다린 이스라엘”(신 18:18-19; 행 3:22-24)

이스라엘이 기다린 참 예언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이로부터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실망한 두 제자, 왜?

누가복음 24 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 실망하여 고향(엠마오)으로 돌아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옆에서 걸으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들 중 글로바가, '예수님은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는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주의 마음으로 대언(선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함을 강조하십니다(24:25). 그러니, 구약 예언자들이 말한 참 예언자(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2] 베드로가 증언한 예언자 되신 그리스도

사도행전 3 장, 사도 베드로는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신 18:18-19) 그리스도의 참 예언자 되심을 말씀합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훗날 세워 주신 이유는 '그의 말을 듣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자로 불리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예언자들의 말씀의 최종 권위를 가지심을 뜻합니다.

예:

- i. 마 5:21~ 율법: '살인하지 말아라' -> 예수님: 형제에게 성내고 바보라고 부르면 심판 받는다.
 - ii. 마 5:38~ 율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 예수님: 오른뺨을 치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심.
- 예수님은 새 생명의 삶으로 안내하는 최종 권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3] 말씀의 성취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밝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 11 장 침례(세례)요한이 투옥되었을 때, 요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확신이 흔들려서 자기 제자들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그리스도)입니까?'라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 답변은, '요한에게 알려라. 눈 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마 11:4-6)

이 말씀은 사 35:5-6 과 사 26:19 과 사 61:1 의 복합 인용이며, 나병환자 이야기는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낫게 하는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빈번하게 반복되는 말은 '그날이 오면'입니다. 그날은 메시아(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 메시아는 예언자가 한 행위와 말씀들을 삶과 사역속에서 녹여낸 참 예언자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빈번하게 반복되는 말은 '돌아오라'입니다. 예레미야는 상하고 지치도록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백성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은 참 예언자로서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알기에 기쁨도 있었지만 큰 고통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믿고 순종한다는 확신에 차 있으니, 이런 왜곡된 종교적 신념과 싸우는 일은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 예언자 되신 그리스도의 날이 임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배우고, 무엇보다 그분 사랑의 생명의 길을 배우고 따라갑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과 행동과 성품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주님을 신뢰하며 정진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예수님이 구약 모든 예언자들의 최종 권위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까?
2. 그리스도가 이미 오신 날을 맞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방식을 배우며 따르는 삶은 구약 시대의 율법을 따르며 살던 삶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